

# 1700년 한국 불교 예술 조각으로 이어간다

## 김해 보광불교조각연구소

언젠가 번다한 고민들에 이 마음이나마 불전에 공양 올리고자 집근처 작은 암자를 들렀을 때이다. 불상 뒤로 펼쳐진 영산회상도의 인물상들이 금방이라도 걸어 나올 듯 꿈틀거리는 통에 깜짝 놀랐다. 정신을 차리고 살펴보니 그림이 아니라 조각물이었다. 촛불의 흔들림에 이리저리 움직이듯 보였던 것이다.

어떤 이의 손길일까 항상 궁금했었는데 10여 년이 훌쩍 지난 지금 그 손끝의 주인공 공을 만나게 됐다. 보광불교조각연구소(소장 안강수, 경상남도 문화재 전문위원)는 김해에 자리잡고 있다.

들어선 공방은 인기척에도 무심하다. 몇 번 소리쳐 봤지만 여전한 침묵에 무안했던 마음이 미안할 지경이다. 입구를 들어서니 작업 중인 대웅전 현판에서부터 연잎, 서까래, 부연 등 곳곳에 담겨진 부재들이 보인다. 재료들을 지나치는 동안 목재에서 뿜어나는 특유의 향기 탓인지 이내 마음이 편안해진다. 삼매에라도 든 것인지 눈초리가 오직 칼끝에 머문 모습들에 압도되어 묵묵히 다가서 자리에 앉았다.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라는 컷마디로 시작된 10여 년 전 영산회상도의 주인공 안강수 소장을 만난 느낌은 27년간 외길을 걸어온 장인의 고집스런 모습이라기보다 소년 같은 해맑은 웃음과 이웃집 형 같은 털털함이었다.

보광불교조각연구소가 문을 연 것은 올해로 17년째다. 안강수 소장의 범명인 보



보광불교조각연구소는 17년 동안 불교 조각을 통해 한국불교 예술의 일을 이어가고 있다. 왼쪽은 직원들 사진 오른쪽은 안강수 소장 작업 모습.



광(普光)을 따서 사람들에게 불교조각을 통해 한국불교를 널리 전하고, 어려운 이웃에게도 널리 베풀며 살겠다는 의미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같으며 씩스러운 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안 소장은 2012년

### 27년간 외길 걸으며 작업 매진

### 33관음보살상 대작불사 발원

대한불교청년회 만해공원 건립을 위한 자선전시회를 비롯 올해는 17주년을 맞아 김해지역 이동보호시설 동공원을 위한 자선 전시회를 지난 5월 개최할 정도로 이웃사랑에도 열심이다.

연구소에는 안 소장을 비롯한 총 6명이 일을 하고 있다. 올해로 13년째 일을 하고 있는 전옥진 씨는 “정말 좋아서 하지 않

면 건디기 힘든 일이다. 웬만한 분들은 하루를 못 버티고 도망가 버린다”고 전했다. 오늘날 불교조각계의 현실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현재 경상남도 문화재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안 소장은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과 열정도 남다르다. 그는 “불교문화는 한국의 문화요 열이다. 중국, 베트남 등지에서 값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마구잡이 식으로 불상을 수입해 일반 사람도 아닌 전통사찰에까지 버젓이 자리한 모습을 보면 정말 안타깝다”며 “1700년 한국불교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전승하고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21세기 한국불교를 세계 속에 드러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안 소장은 관세음보살상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특히 깊다. 그는 “중생의 고통에 따라 33가지의 몸으로 출현하시는 현세불인

관세음보살님은 그 형상적 모습의 다양함에서 예술적 가치와 공부하는 이들에게 무한한 공부의 계기”가 된다고 예술적 호기심을 밝혔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묻자 “이번 생에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다. 조각은 변화와 달리 빛의 방향과 보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 그 모습과 감동이 다르다. 불보살이 실제 현현한 듯 범법의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법당 외부 벽면을 모두 조각으로 장엄하는 것과 33관세음보살님을 한 법당에 모두 모실 수 있는 대작불사를 제 손으로 직접 성취하고 싶다”며 포부를 밝혔다.

나오는 길 연구소 전시장에 모셔진 관세음보살상의 지극한 미소가 마치 대작불사를 꿈꾸는 안강수 소장의 반짝이는 눈빛에 대한 화답처럼 들렸다. (055)323-9964

박경수 부산지사장

## “큰스님 유훈 받들어 수행과 포교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 경봉 스님 열반 31주기 추모다례제

근세불교의 대표적 선승인 경봉스님 열반 31주기 추모다례제가 7월 5일 영축총림 통도사 극락암 호국선원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방장 원명 대종사를 비롯 호국선원장 명정 스님,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 통도사 전 주지 정우 스님, 성파 스님, 동주 스님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했다.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경봉 큰스님께서는 늘 수행과 포교를 강조하셨다. 하지만 지금까지 스님의 뜻에 부합해 수행하고 포교를 하지 못한 것 같다”며 “스님의 유훈을 받들어 열심히 수행하고 노력해 증생제도를 위해 최선을



경봉 스님 추모다례제.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23회째를 맞이한 경봉장학회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동국대학교, 위덕대학교, 중앙승가대학교와 통도사 강원과 선원에서 정진중인 스님 37명에게 총3,800만원의 장학금과 수행지원금을 전달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 진관·지원 스님 <고려전기불교사연구> 출간

### 부산 문수사 출판기념회

불교인권운동에 앞장 서왔던 대표적 두 스님인 진관 스님(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과 지원 스님(문수사 주지)이 고려 전기 불교사를 재조명해서 공동 저술한 <고려전기 불교사연구>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지난 7월 4일 부산문수사 대웅전에서 개최된 출판기념회에는 공동저자인 진관 스님, 지원 스님을 비롯 서영교 국회의원, 설동근 동명대 총장, 이종철 남구정장



<고려전기불교사연구> 출판기념회.

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함께 했다.

진관 스님은 “이번 연구를 기초로 고려 불교사 연구의 새로운 전환이 되길 기대한다”며 소감을 전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 캠페인

###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 사찰 쓰레기 불자들이 해결하자

사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많아진다는 것은 사찰주변의 청정한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문제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예로부터 불가에서는 청빈하고 검소한 삶을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하였다. 그러한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발우공양이다. 스님들은 발우에 밥이 채워질 수 있는 소량의 음식을 담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비워냄으로써 비유의 미학을 불자들에게 보여 주었다.

절에서 스님들이 해왔던 발우공양은 한국의 사찰문화를 외국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시작한 템플스테이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외국인들이 한국음식을 먹는 것도 어색할 텐데 발우공양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일단 신기해서 그렇겠지만, 한편으로는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적당량의 음식을 선택해서 그것을 남기지 않는 것이 곧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일 것이다.

공양시간이 되면 공양간을 개방하고 절을 찾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음식을 베푸는 것이야말로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그냥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서인지 음식을 남기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다. 음식을 남기는 것은 생활쓰레기 가운데에서도 가장 처리하기 어려운 음식쓰레기를 만들어내는 것일 뿐

만 아니라 예로부터 스님들이 가르쳐온 청빈한 삶의 정신을 실천하지 않는 나쁜 습관이다.

이제는 대부분의 사찰에서 도량이 충분히 발달되어 있고 쓰레기의 수거도 즉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활쓰레기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많지 않다. 그렇지만 사찰에 생활쓰레기가 많아서 쓰레기차가 수시로 들락거리는 것은 보기에다 어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찰의 쓰레기문제는 일차적으로 불자들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다. 사찰에 오는 불자들이 욕심을 줄이고, 검소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 것이고, 자기가 만든 쓰레기는 자기가 되가 버린다는 습관을 들인다면 더욱 더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사찰이 청정도량이라고 하는 것은 사찰안팎에서 더러운 것들이 보이지 않을 때 문일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사부대중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진다면 우리 사찰에서 쓰레기문제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는 없을 것이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사찰의 쓰레기문제는 그것이 어떤 유형의 것일지라도 부끄러운 일이다. 충남 비사찰

#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 · II

- 광명 만덕 · 자재 만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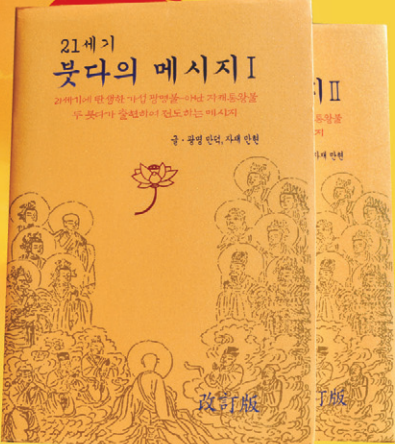
운주사 불교서적 연속 28주 베스트셀러 1위  
교보문고 종교서적 16주 베스트셀러 1위

이 책을 수행인의 양심으로 역사의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아속 절대계에 32상 빛의 몸으로 여여히 계신다.”

삼매에서 친견한 부처님의 친설을 담아 윤회와 사후세계에 대한 진실을 밝혔다!!

개정판



추천본사 T. 033)243-1795, 243-1787 불서총판 운주사 T. 02)3672-7181 ※각종 인터넷 서점 및 전국 교보, 영풍, 리브로 대형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 영산불교 현지사의 화제의 신간!!

추천 도서



### 영산불교 금강반야바라밀경

광명만덕 자재만현 큰스님 김수, 서연 이대성 저, 704쪽, 가격 20,000

금강경오가해와 차원을 달리하는 새로운 관점의 금강경해설서. 오가해를 비롯해 기존의 금강경 해설서들이 주로 선(禪)의 입장에서 해설해왔다면 일불승의 입장에서 금강경을 해설한 미증유한 저술. 특히 산스크리트어 원문과 영문을 함께 실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 신불교 영산불교를 말한다

전대기 김중섭 이대성 외 저, 339쪽, 가격 15,000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1, 2>를 읽은 불자지성인들이 <붓다의 메시지>가 불자들에게 미치는 의미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천착하고 있는 저자들의 비평서이다. 저자들은 금세기의 불후의 고전이 된 <21세기 붓다의 메시지>를 부연설명하거나 요약정리하여 이 저서가 던지는 불교사적 의의를 천명하고 있다. 한 저자는 <붓다의 메시지>를 읽고 참탄과 경이를 금하지 못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불과를 이룬 대승취자의 순수하고 청정한 법음의 성서이고 일체법을 통달한 최고의 종교철학서이다”



### 붓다의 가르침에서 바라본 세계종교

지재만현 큰스님 김수, 법강 김중섭 저, 715쪽, 가격 25,000

통상적인 비교종교학의 관점을 넘어서 붓다의 가르침에 입각해 21세기 인류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세계적인 종교에 대해서 장단점을 해부한 종교비평서. 뿐만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우주삼라만상은 어떻게 생성되었는가 등 인류의 근본적 의문에 대해 최고의 비밀을 파헤치고, 또한 달라이라마의 <한 원자 속의 우주>에서 제기한 우주기원 5대 의문에 대한 대담을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다.